

# 순천 17개 기관장 “긴급재난지원금 기부합니다”

### 고통 분담·지역경제 활성화 솔선수범 순천시·순천대총장 등 기부 약속

순천지역 17개 기관 대표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기로 했다.

5일 순천시에 따르면 허석 시장과 고영진 순천대 총장 등 지역 17개 기관장들이 전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부를 약속한 기관장은 허 시장, 고 총장을 비롯해 해서정진 순천시의회 의장, 서형원 정암대 총장, 이길훈 순천교육장, 노재호 순천경찰서장, 강백근 순천세무서장, 김경탁 전남동부보훈지청장, 고경술 순천우체국장, 김중욱 순천상공회의소장, 강성재 순천농협조합장, 이성기 순천광양축협조합장, 채규선 순천원협조합장, 조정록 순천시산림조합장, 조창협 NH농협 순천시지부장, 송재동 한전 순천지사

장, 장형식 한국철도 호남본부장 등 17명이다.

이날 행사는 기부소감 발표와 기부서 서명, 기부 열매 달기 및 캠페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기관단체장들은 한 목소리로 “코로나19로 국민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하루속히 사회가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4일부터 저소득층에게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오는 11일부터는 일반 국민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원금 기부를 신청할 경우 연말소득 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순천시는 조선시대 부자들에게 재물 나누기를 권했던 ‘권분(權分)’에서 착안한 순천형 권분 운동을 벌이고 있다.

허 시장은 1000만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순천시 공무원들이 5300만원을 기탁했다. 순천농협과 순천광양축협, 순천상공회의소 등 기관 단체 임직원들도 권분 운동에 참여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지역 17개 기관 대표들이 지난 4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약속했다. <순천시 제공>

# 개장 3주년 온라인 장터 ‘보성물’ 5월 한달동안 전 품목 10% 할인

보성군은 온라인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인 ‘보성물’ 오픈 3주년을 맞아 5월 한달간 전 품목 10%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 행사는 5월 한 달 간 전품목 10% 할인 행사와 함께 신규회원 5000원 적립금 지급, 구매금액의 5% 포인트 적립, 상품후기 작성 시 1000원 적립금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보성물은 농특산물에 걸맞은 다양한 차연관 제품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또 12년 연속 전남 10대 브랜드 쌀에 선정된 녹차미인 보성쌀, 청정 득량만에서 자란 각종 수산물, 건강에 좋은 흑두마토, 신토불이 잡곡, 장류 및 발효식품 등 750여개의 다양한 상품을 만날 수 있다.

이번 할인 행사는 3주년 기념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영세 소상공인과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보성군은 농·특산물 온라인 광고와 서울지하철 스크린 및 KTX 용산역, 광주 유스퀘어 광고 등 다양한 홍보물을 통해 ‘보성물’을 알리는데 힘을 쏟고 있다. /보성=김은중 기자 kyb@kwangju.co.kr



# 곡성군, 청년 창업농 11명 선발 3년동안 영농 정착비 지원

곡성군은 청년 창업농 11명을 선발해 매월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최대 3년 간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1년 차에는 매월 100만원, 2년 차에는 매월 90만원, 3년 차에는 매월 8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 농업인이다.

곡성군은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 창업농 선발 면접을 실시했다. 1차 서류전형은 통과한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면접에는 외부인으로 구성된 면접위원 3명(교수2, 전문농업인1)이 ‘블라인드 방식’의 면접을 진행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면접을 통과한 11명의 최종 명단은 5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며 “곡성군은 미래 농업 주역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 고흥군 팔영대교 입구에 ‘스마트 복합쉼터’ 만든다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국비 20억 확보

고흥군은 팔영대교 입구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는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 복합 쉼터는 국도변에 휴게소, 문화체험·경관조망 등을 연계해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편의 시설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선보이는 첫 시범사업으로 국비 20억원이 지원된다.

팔영대교 복합 쉼터는 영남면 우천리 팔영대교 인근에 휴게소, 주차장과 함께 농수특산물 판매소, 전망시설 등으로 조성된다.

여수-고흥 연륙·연도교 개통으로 하루 평균 1만 여대의 차량이 고흥을 찾고 있지만 팔영대교 인근에는 쓸만한 공간이 없어 불편을 겪었다.

고흥군은 팔영대교를 통행하는 도로 이용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고흥의 농수특산물 판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팔영대교 인근 복합 쉼터 조성을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건의했다.



고흥 팔영대교 입구 만남의 광장에 조성하는 ‘스마트 복합쉼터’ 조감도. 또 이 사업을 위해 지난해말 3만3000㎡(1만평)의 토지를 매입하고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을 수차례 방문,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고흥군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와 공동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 단계부터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전국 유일의 멋과 낭만이 있는 고품격 쉼터로 만들 방침이다.

송귀근 고품격쉼터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고품격의 강한 사업 추진의지가 모여져 이번 공모에 선정됐다”며 “앞으로 여수에서 고품격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질 좋은 관광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광양시, 2분기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픽슨’ 선정

광양시가 올해 2분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픽슨을 선정했다.

광양시는 오는 11일 정례회 때 노사문화 우수 기업 표창을 하고, ㈜픽슨의 회사기를 오는 7월 말까지 시청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주요 도로변에 게양하기로 했다.

1994년 설립된 ㈜픽슨(대표이사 정성만)은 지난 2001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그동안 수입에 의존했던 파형강관·파형강판을 동시 생산해 중국·미국 등 해외 10개국에 수출, 고용 창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고급없는 연구개발로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과 건설 신기술을 획득하며 고부가가치 친환경 도목 자체 제조업체로 발전하고 있다.

(주)픽슨의 차별화된 기술력은 직원 제안을 적극 수용하는 데 있으며, 우수한 인재가 회사의 미래는 가치 아래 국내외의 연수 등 다양한 근로자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국내외 경제악화로 매출 하락 등 경영난에 봉착하자 노사가 합심해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 이익은 근로자에게 환원하는 등 신뢰로 형성된 노사문화의 힘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픽슨은 광양시 백운장학회와 어린이보육재단에 지속적으로 기부를 실천하며 나눔경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의미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픽슨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회사기를 7월 말까지 광양시청에 게양한다. <광양시 제공>

# 아동친화환경 조성 우수 순천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순천시가 ‘2020년 아동친화환경 조성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5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아동의 인권이 존중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주관 유공 기관으로 표창을 받았다.

유공기관 표창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전국 44개 지자체 중 아동의 권리 존중 및 아동복지 기여도, 사회적 평가 등 아동친화환경 조성 우수 사례를 종합해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곳을 선정, 매년 어린이날에 맞춰 수여한다.

순천시는 ▲아동 친화팀 신설과 아동 친화 조례 제정으로 법률적·제도적 기반 마련 ▲아이들과 소통하는 오픈 시장실 운영, 어린이 감리단, 아동·청소년의회 활동 등 아동의 정책참여 기회 제공 ▲나가서 놀자 자연친화 프로그램, 기적의 놀이터, 유·청소년 수영장 개장으로 아동의 놀 권리 환경 조성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으로 교통안전 강화 등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 친화 도시 구축’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허석 순천시장은 “기관 표창을 바탕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가 온전하게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쉬어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열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 않더라도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